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6개월 발생보고서(2020.7.19.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접촉자관리단 박광숙, 김영화, 염한솔, 황인섭, 권재우, 김미영, 박영준, 곽진, 박욱*

*교신저자 : okpark8932@korea.kr

초 록

본 보고서는 2020년 1월 20일부터 지난 6개월 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서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환자 등을 신고하고, 중앙 및 지자체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상황 보고서이다.

2020년 7월 19일 기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3,745명, 사망자는 295명이다. 17개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대구, 서울, 경기, 경북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성별로는 여자가 55.8%로 남자보다 높게 발생하였고, 많이 발생한 연령대는 20대(25.7%)였다. 사망자는 60세 이상이 92.9%(274명)였으며, 남자가 52.5%로 여자보다 높았다. 치명률은 전체 확진자에서 2.1%였고, 연령대로 구분하였을 때 80세 이상의 치명률이 25.3%로 가장 높았다.

지난 6개월 간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주요 감염경로는 신천지 관련 37.9%, 집단발생 27.2%, 해외유입 14.9%, 확진자 접촉 9.6% 이었으며, 8.6%는 감염경로에 대해 역학조사 중이다.

주요 검색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발병, 감염병감시, 역학조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들어가는 말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2020년 7월 19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14,043,176명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7월 19일까지 총 13,745명 발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적으로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6개월 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초기 해외유입 사례 위주의 '제1기', 신천지 등 대규모 집단발생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제2기', 생활 속 거리두기 하에 집단 발생 및 산발사례 발생이 지속되는 현재의 '제3기'로 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6개월을 맞아, 국내 발생 현황 및 주요 조치 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의료기관 등에서 신고한 코로나19 발생 자료는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역별 통계는 신고기관의 주소에 기반하여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상이할 수 있어 자료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몸 말

1. 유행시기별 국내 발생 양상 주요 특성

국내 코로나19 발생 양상은 주요 사례 및 대응 조치에 따라 다음의 세 단계로 나뉘 볼 수 있다.

먼저 제1기(1.20.~2.17.)는 중국 등 해외유입 위주의 개인단위 산발사례 발생 시기로, 확진자 수는 총 30명이었고 그 중 17명(56.7%)이 해외유입 사례였다. 우리나라는 첫 환자 발생 이후 1월 27일에 감염병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하였고, 2월 4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특별 입국 검역을 시행하였다.

제2기(2.18.~5.5.)는 2월 18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신천지 관련 대규모 유행사례를 시작으로 의료기관,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집단발생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였고, 이 시기의 총 확진자 수는 10,774명, 일평균 확진자 수가 138.13명 정도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2월 23일에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였고, 2월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3월 22일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되었고, 지역사회 대규모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감염사례가 점차 감소하였다. 다만 4월부터 다시 늘어난 해외유입 사례에 대응하고자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제3기(5.6.~현재)는 「심각」수준을 유지하며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시점부터를 의미하며, 5월 초에 수도권 유흥시설에서 시작된 집단감염 사례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밀집·밀폐·밀접 시설 내의 감염으로 유행의 연결고리가 이어져 현재까지도 산발적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클럽, 대형 물류센터, 종교모임, 방문판매 등 수도권 및 충청·호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에서 감염이 확산되었으며, 해외유입 역시 증가하였다. 7월 19일까지 이 시기 일평균 확진자 수는 39.21명으로, 5월 29일 정부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를 시행하였고, 6월 2일에는 고위험시설을 지정하여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6월 말부터 방역조치 강화 국가들을 지정하여 입국 시 검역을 더 강화하였고, 6월부터 증가한 아시아(중국 외) 국가 등 해외유입 사례에도 대응하고 있다(그림 1,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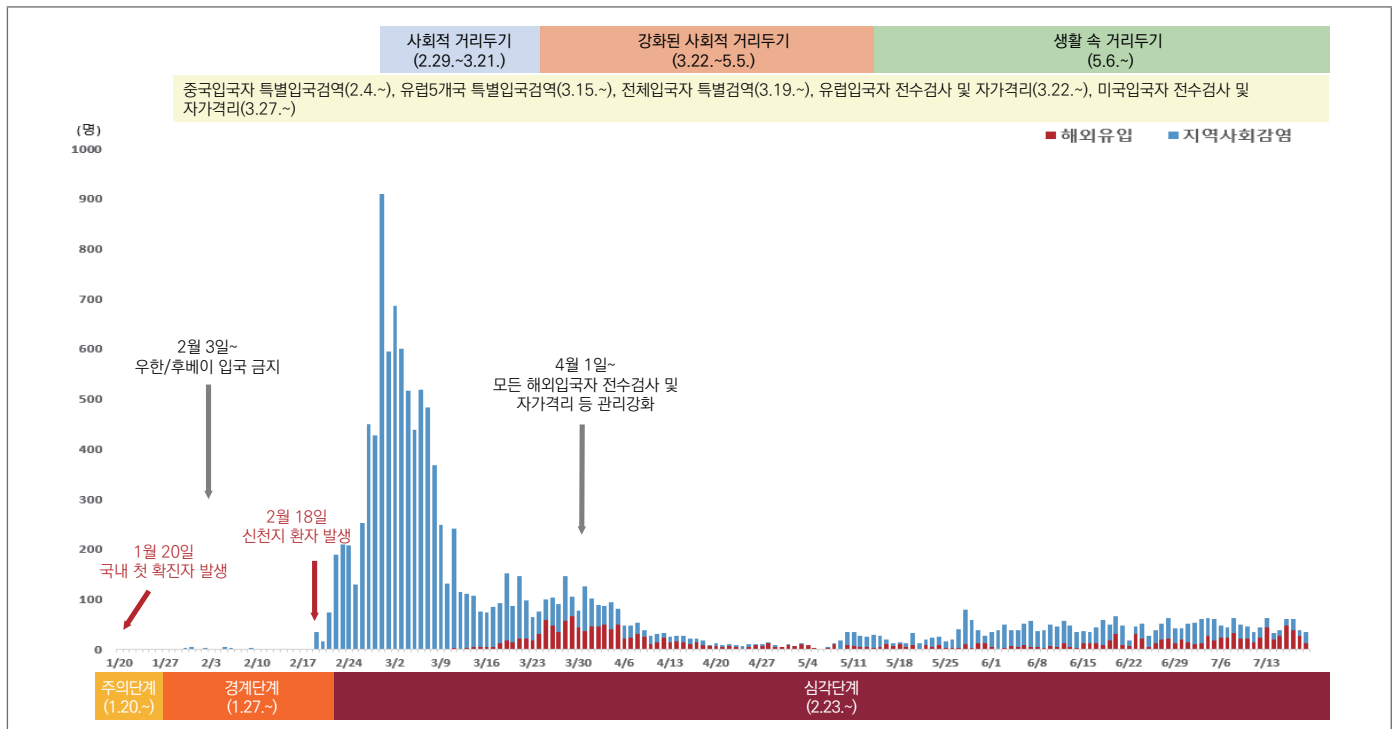


그림 1. 코로나19 유행시기별 국내 발생 양상

표 1. 코로나19 유행시기별 주요 특징

구분	제1기 (1.20.~2.17.)	제2기 (2.18.~5.5.)	제3기 (5.6.~7.19.)
	해외유입 사례별 발생	대규모 집단발생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발생, 산발사례 발생
확진자수	30명	10,774명	2,941명
일평균 확진자수	1.03명 (최소 0명 ~ 최대 5명)	138.13명 (최소 2명 ~ 최대 909명)	39.21명 (최소 2명 ~ 최대 79명)
성별 (남 : 여)	성별차이 없음 (53.3 : 46.7)	여성비율 높음 (40.5 : 59.5)	남성비율 높음 (57.6 : 42.4)
해외유입비율	56.7% (17명/30명)	10.1% (1,085명/10,774명)	32.1% (943명/2,941명)
사망자* (치명률)	1명 (3.3%)	273명 (2.5%)	21명 (0.7%)
유행특성	• 중국 등 해외입국자 위주 개인단위 산발사례 발생	• 신천지대구교회 대량 발생으로 여성, 젊은 층 다수	• 클럽, 대형 물류센터 등 집단시설 → 종교시설, 소모임, 방문판매 등으로 중장년층 비율 증가
주요조치	• (1.27.) 위기단계 주의 → 경계 • (2.4.) 중국입국자 특별 입국검역	• (2.23.) 위기단계 경계 → 심각 • (2.23.) 사회적 거리두기 • (3.22.)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4.1.) 해외입국자 관리강화	• (5.6.) 생활 속 거리두기 • (5.29.)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 (6.2.) 고위험시설 지정 • (6월말) 방역조치강화국가 지정

* 사망자 수는 해당시기 발생한 환자의 7.19일 0시까지의 사망건수를 의미함.

2. 성별, 연령별, 지역별 발생 특성

확진자의 성별은 여자가 55.8%로 남자보다 많이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6.5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0대가 17.7%였다. 지역별로는 대구 50.4%, 서울 10.7%, 경기 10.4%, 경북 10.1% 순으로, 대구·경북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대구 284.5명, 경북 52.3명, 서울 15.1명, 세종 14.6명, 광주 12.8명 순이었다.

사망자의 성별은 남자가 52.5%로 여자보다 많았으며, 치명률은 2.1%였다. 사망자의 92.9%가 60세 이상이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치명률이 증가하여 80세 이상에서의 치명률은 25.3%였다. 지역별로는 사망자 중 64.4%가 대구였고, 경북 18.3%, 경기 9.8% 순이었다(표 2).

3. 감염경로별 발생 특성

지난 6개월 간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주요 감염경로는 신천지 관련 37.9%, 집단발생 27.2%, 해외유입 14.9%, 확진자 접촉 9.6%이었으며, 8.6%는 감염경로에 대해 역학조사 중이다.

국내에서는 유행 시기 제2기에 해당하는 8주차부터 시작된 신천지 집단감염 사례가 16주차까지 보고되었고, 신천지 관련 확진자의 97.4%가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이후 제3기에도 지속되는 사업장,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병원,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소규모 또는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는 수도권(43.1%), 대구·경북(31.5%)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표 3).

해외유입의 경우 유행 시기 제1기에 중국에서 입국한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제2기 중 13주차에서 17주차까지는 아메리카 및 유럽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많았으나, 제3기의 25주차부터는 아시아(중국 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 후 확진 사례도 늘고 있어, 해외유입 확진자 중 31.5%가 외국인이다. 검역이

표 2. 코로나19 성별, 연령별, 지역별 발생 및 사망 분포

구분	2020. 1. 20. ~ 7. 19. 0시 기준					
	발생				사망	
	총 합계 (명, %)	국내감염 (명, %)	해외유입 (명,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	사망자 (명, %)	치명률 (%)
성별						
남자	6,070 (44.2)	4,809 (41.1)	1,261 (61.7)	23.5	155 (52.5)	2.6
여자	7,675 (55.8)	6,891 (58.9)	784 (38.3)	29.5	140 (47.5)	1.8
연령대						
10세 미만	237 (1.7)	175 (1.5)	62 (3.0)	5.7	—	—
10~19세	762 (5.5)	604 (5.2)	158 (7.7)	15.4	—	—
20~29세	3,531 (25.7)	2,751 (23.5)	780 (38.1)	51.9	—	—
30~39세	1,684 (12.3)	1,192 (10.2)	492 (24.1)	23.9	2 (0.7)	0.1
40~49세	1,817 (13.2)	1,540 (13.2)	277 (13.5)	21.7	3 (1.0)	0.2
50~59세	2,435 (17.7)	2,266 (19.4)	169 (8.3)	28.1	16 (5.4)	0.7
60~69세	1,787 (13.0)	1,697 (14.5)	90 (4.4)	28.2	41 (13.9)	2.3
70~79세	911 (6.6)	899 (7.7)	12 (0.6)	25.3	86 (29.2)	9.4
80세 이상	581 (4.2)	576 (4.9)	5 (0.2)	30.6	147 (49.8)	25.3
지역						
서울	1,474 (10.7)	1,151 (9.8)	323 (15.8)	15.1	10 (3.4)	0.7
부산	157 (1.1)	119 (1.0)	38 (1.9)	4.6	3 (1.0)	1.9
대구	6,932 (50.4)	6,880 (58.8)	52 (2.5)	284.5	190 (64.4)	2.7
인천	370 (2.7)	296 (2.5)	74 (3.6)	12.5	2 (0.7)	0.5
광주	186 (1.4)	165 (1.4)	21 (1.0)	12.8	1 (0.3)	0.5
대전	166 (1.2)	147 (1.3)	19 (0.9)	11.3	2 (0.7)	1.2
울산	57 (0.4)	34 (0.3)	23 (1.1)	5.0	1 (0.3)	1.8
세종	50 (0.4)	45 (0.4)	5 (0.2)	14.6	—	—
경기	1,433 (10.4)	1,074 (9.2)	359 (17.6)	10.8	29 (9.8)	2.0
강원	72 (0.5)	51 (0.4)	21 (1.0)	4.7	3 (1.0)	4.2
충북	71 (0.5)	56 (0.5)	15 (0.7)	4.4	—	—
충남	185 (1.3)	159 (1.4)	26 (1.3)	8.7	—	—
전북	38 (0.3)	18 (0.2)	20 (1.0)	2.1	—	—
전남	33 (0.2)	16 (0.1)	17 (0.8)	1.8	—	—
경북	1,393 (10.1)	1,369 (11.7)	24 (1.2)	52.3	54 (18.3)	3.9
경남	153 (1.1)	110 (0.9)	43 (2.1)	4.6	—	—
제주	25 (0.2)	10 (0.1)	15 (0.7)	3.7	—	—
검역	950 (6.9)	—	950 (46.5)	—	—	—
국적						
내국인	12,916 (94.0)	11,516 (98.4)	1,400 (68.5)	—	—	—
외국인	829 (6.0)	184 (1.6)	645 (31.5)	—	—	—
총 합계	13,745 (100.0)	11,700 (100.0)	2,045 (100.0)	26.5	295 (100.0)	2.1

표 3.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경로별 분포

지역*	합계	해외유입	국내감염				미분류
			신천지 관련	집단발생	확진자 접촉	그 외 기타	
서울	1,474	323	8	872	60	77	134
부산	157	38	12	58	18	11	20
대구	6,932	52	4,511	699	917	13	740
인천	370	74	2	263	10	9	12
광주	186	21	9	143	3	6	4
대전	166	19	2	100	22	5	18
울산	57	23	16	4	3	9	2
세종	50	5	1	40	3	0	1
경기	1,433	359	29	809	69	79	88
강원	72	21	17	26	—	4	4
충북	71	15	6	29	8	2	11
충남	185	26	—	142	4	4	9
전북	38	20	1	12	—	4	1
전남	33	17	1	9	2	2	2
경북	1,393	24	566	478	192	3	130
경남	153	43	32	50	6	9	13
제주	25	15	—	5	—	5	—
검역**	950	950	—	0	—	0	—
합계	13,745 (100.0%)	2,045 (14.9%)	5,213 (37.9%)	3,739 (27.2%)	1,317 (9.6%)	242 (1.8%)	1,189 (8.6%)

* 2020년 7월 19일 0시까지 코로나19 환자 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 전산시스템에 등록(신고)한 자료 기준으로 환자 등의 주소지 통계와는 상이할 수 있으며,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자료임

** 인천공항검역소 및 김해검역소 등 입국 시 검역과정에서 검사하여 확진된 환자

※ 용어정리

- 해외유입: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감염되어 우리나라에 입국한 확진자
- 신천지 관련: 신천지 신도 중 코로나19 감염자 및 신천지 신도와 접촉한 확진자
- 집단발생: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소규모 및 대규모 집단 감염사례 확진자 (해외유입 및 신천지 관련 제외)
- 확진자 접촉: 해외유입 및 신천지 관련 확진자를 제외한 기타 확진자와 접촉한 확진자
- 그 외 기타: 해외유입 확진자와 국내에서 접촉한 확진자 및 특별관리지역 방문 확진자
- 미분류: 확진자 중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역학조사 중인 확진자

표 4.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의 대륙 및 국적별 발생 분포

구분	합계	국적	
		내국인	외국인
중국	19	12	7
아시아(중국 외)	785	353	432
아메리카	696	563	133
유럽	514	451	63
아프리카	27	17	10
오세아니아	4	4	—
합계	2,045 (100.0%)	1,400 (68.5%)	643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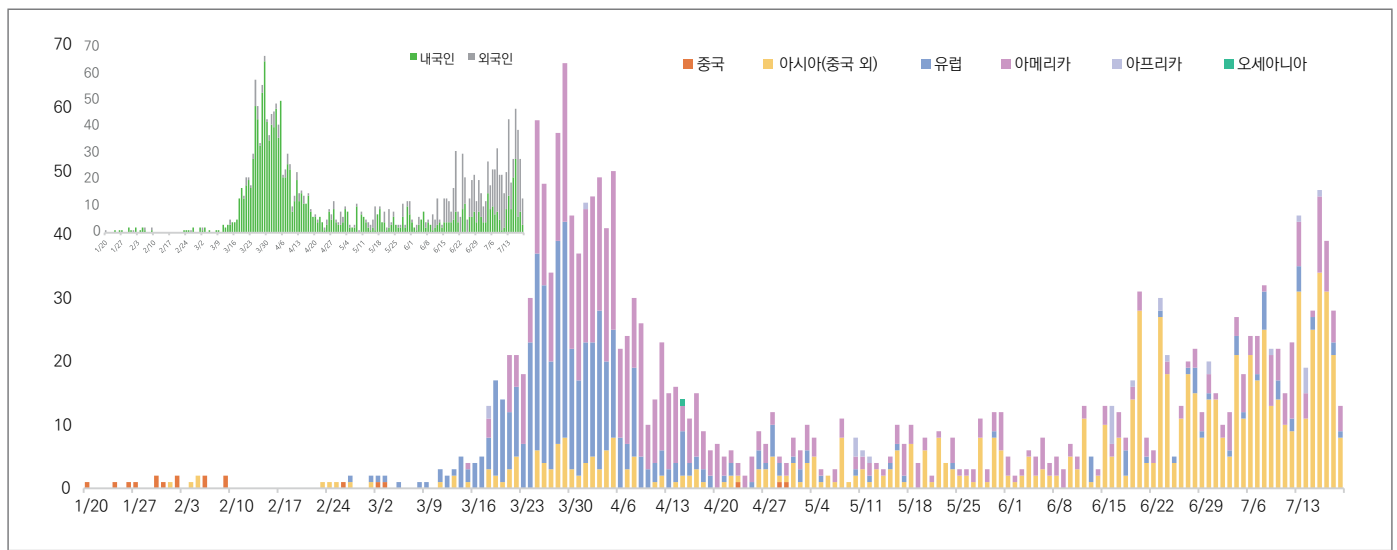


그림 2.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의 발생 양상

강화된 이후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확진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입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된 경우는 경기, 서울 순으로 많았다(표 4, 그림 2).

4. 격리해제 현황

2020년 7월 19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3,745명 중 12,556명(91.3%)이 격리해제 되었으며, 사망자 295명(2.1%)을 제외한 894명(6.6%)이 치료중이다(그림 3,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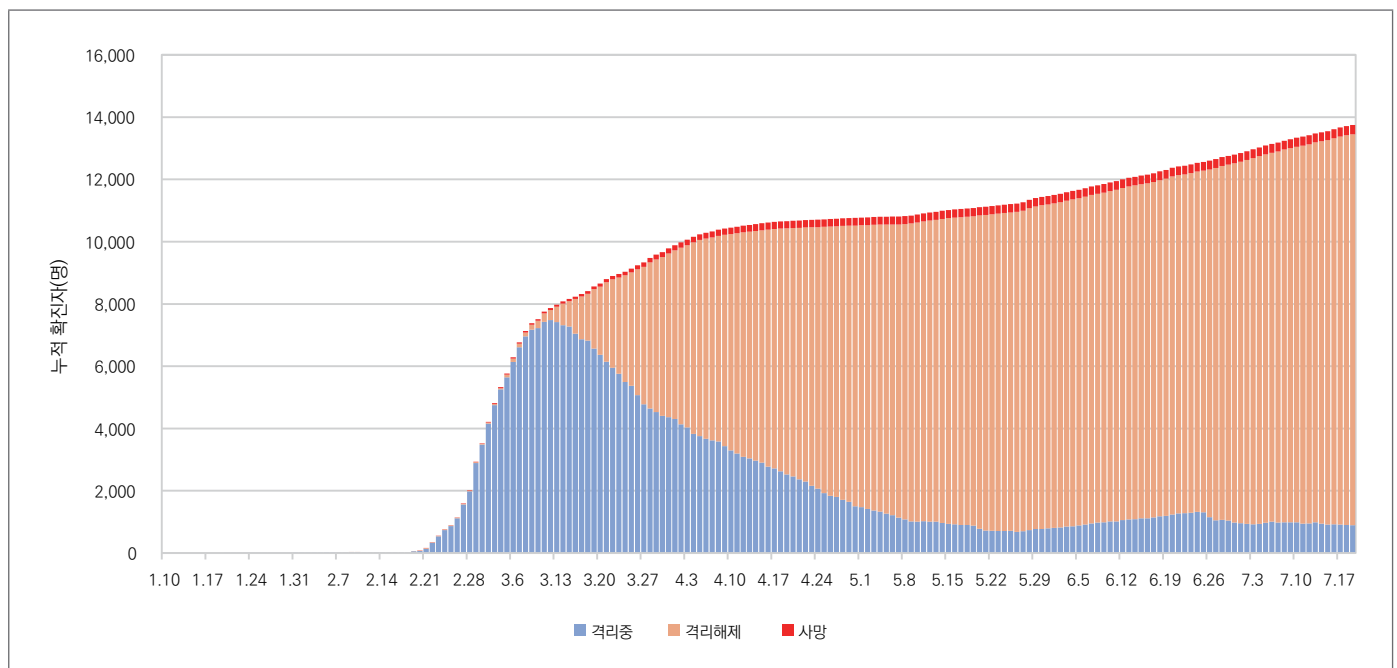


그림 3.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 사망 누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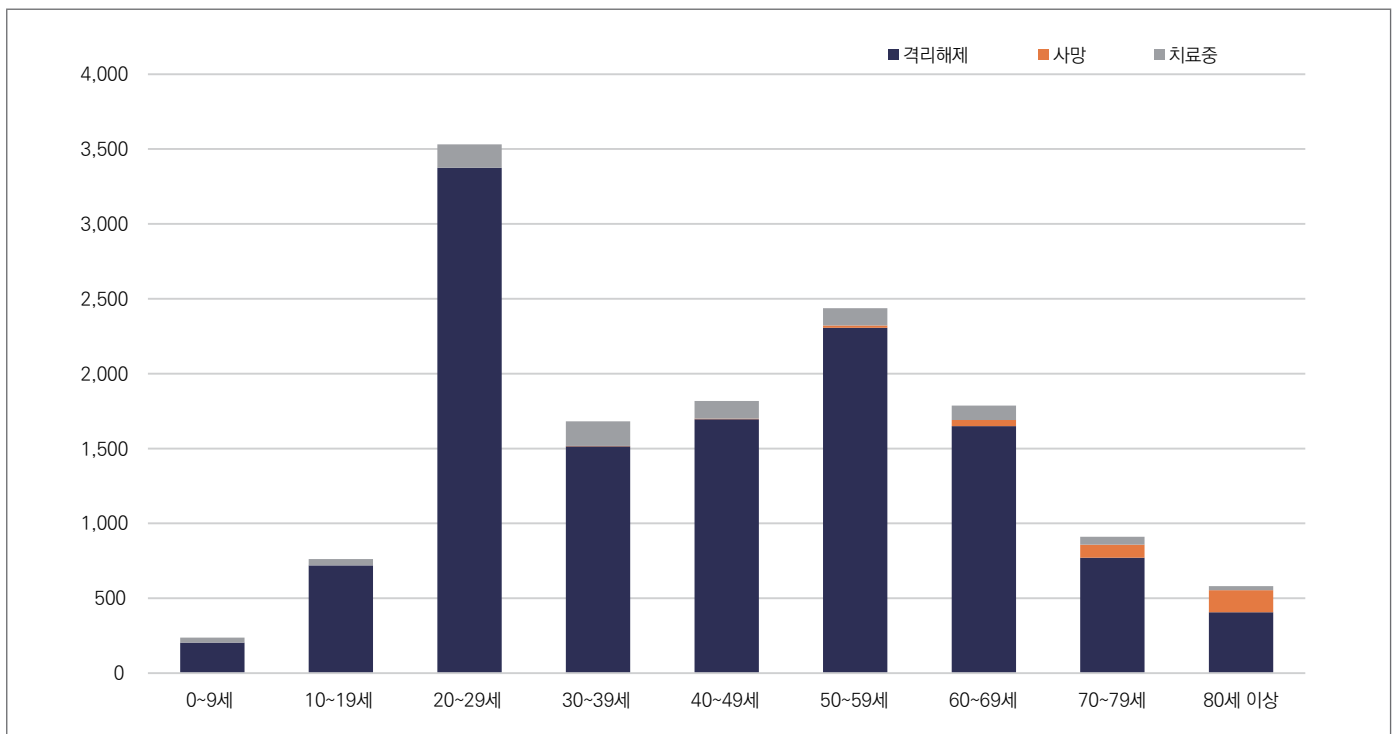


그림 4. 코로나19 확진자의 연령별 격리해제 · 사망 현황

맺는 말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020년 7월 19일까지의 총 13,74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7월 19일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6개월을 맞아 그 간의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경과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국내 집단발생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방문판매,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호남권에서 소규모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 발생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방문판매 관련된 방문 자제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예방수칙 실천과 사회적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 홍보 확산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최근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 유입환자의 차단을 위해서 위험도 평가에 기반하여 국가별 강화된 입국자 관리 조치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이 보고된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지난 6개월 간(1.20.~7.19.)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3,745명 발생하였고, 그 중 295명이 사망하였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시기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및 해외유입 사례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시사점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환자 등을 신고하고, 중앙 및 지자체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개월 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경과를 공유하여, 앞으로의 코로나19 발생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전략 및 방역 조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Abstract

COVID-19 6-month outbreak infection report as of July 19, 2020, in the Republic of Korea

Park Kwangsuk, Kim Younghwa, Yeom Hansol, Hwang Insob, Kwon Jaewoo, Kim Miyoung, Park Young Joon, Gwack Jin, Park Ok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Case and Contact Management Task Force

This 6-month report (January 20, 2020 to July 19, 2020) on the COVID-19 situation in Korea was conducted by the disease management division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This report was based on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reported through the Integrated System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and o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conducted by central and local health authorities.

By July 19, 2020, there were 13,745 confirmed cases of COVID-19; including 295 deaths. Confirmed cases were reported in all 17 provinces and cities in Korea, with the highest number of cases recorded in the provinces of Gyeonggi and Gyeongbuk and in the cities of Daegu and Seoul. The results indicated that, by gender, women accounted for a slightly higher proportion (55.8%) of total confirmed cases than men.

The main infectious paths confirmed by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showed several major clusters related to COVID-19. Of the total cases, the proportion of imported cases was 14.9%; 37.9% were from the Shincheonji Church (and Shincheonji-related); 27.2% were small clusters and contacts of confirmed cases (other than Shincheonji); and 8.6% were under investigation as per the infection route surveys.

Keywords: 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Outbreaks, Epidemiological monitoring,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ocial distancing, Enhanced social distancing, Distancing in daily life

Table 1. Main characteristics of outbreaks

	Jan. 20 – Feb. 17	Feb. 18 – May 5	May 6 – Present
	Imported cases	Large-scale clusters, enhanced social distancing	Distancing in daily life, local clusters, sporadic cases
Confirmed cases	30 cases over 1 month	10,774 cases over 3 months	2,941 cases over 6 months
Daily average	1.03 (min 0 – max 5)	138.13 (min 2 – max 909)	39.21 (min 2 – max 79)
Gender (M : F)	No difference (53.3 : 46.7)	Female ratio is higher (40.5 : 59.5)	Male ratio is higher (57.6 : 42.4)
Proportion of imported cases	56.7% (17/30 cases)	10.1% (1,085/10,774 cases)	32.1% (943/2,941 cases)
Deaths (Fatalities)	1 case (3.3%)	273 cases (2.5%)	21 cases (0.7%)
Characteristics of outbreaks	Individual-level, people coming from overseas, sporadic Individual cases	Shincheonji Church, many women and younger individuals	Itaewon, Coupang, etc. (mass facilities) → religious facilities, small gatherings, sales, etc. (middle-aged and elderly)
Major responses	(Jan. 27) Crisis alert level 2 → level 3 (Feb. 4–) Special entry screening for arrivals from China	(Feb. 23–) Crisis alert level 3 → level 4 (Feb. 23–) Social Distancing (Mar. 22–) Enhanced Social Distancing (Apr. 1–) Strengthened management of incoming international travelers	(May 6–) Distancing in daily life (May 29) Strengthened measures for Seoul metropolitan area (June 2) Designated high-risk facilities (Late June) Designated high-risk countries that require strengthened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able 2. The number of confirmed/deceased cases and the incidence rate

	January 20, 2020 – July 19, 2020					
	Confirmed cases				Deaths	
	Total (n, %)	Domestic cases (n, %)	Imported cases (n, %)	Incidence rate (n, per 0.1M population)	Total (n, %)	Fatality rate
Gender						
Male	6,070 (44.2)	4,809 (41.1)	1,261 (61.7)	23.5	155 (52.5)	2.6
Female	7,675 (55.8)	6,891 (58.9)	784 (38.3)	29.5	140 (47.5)	1.8
Age group (yrs)						
≤9	237 (1.7)	175 (1.5)	62 (3.0)	5.7	–	–
10–19	762 (5.5)	604 (5.2)	158 (7.7)	15.4	–	–
20–29	3,531 (25.7)	2,751 (23.5)	780 (38.1)	51.9	–	–
30–39	1,684 (12.3)	1,192 (10.2)	492 (24.1)	23.9	2 (0.7)	0.1
40–49	1,817 (13.2)	1,540 (13.2)	277 (13.5)	21.7	3 (1.0)	0.2
50–59	2,435 (17.7)	2,266 (19.4)	169 (8.3)	28.1	16 (5.4)	0.7
60–69	1,787 (13.0)	1,697 (14.5)	90 (4.4)	28.2	41 (13.9)	2.3
70–79	911 (6.6)	899 (7.7)	12 (0.6)	25.3	86 (29.2)	9.4
≥80	581 (4.2)	576 (4.9)	5 (0.2)	30.6	147 (49.8)	25.3
Region						
Seoul	1,474 (10.7)	1,151 (9.8)	323 (15.8)	15.1	10 (3.4)	0.7
Busan	157 (1.1)	119 (1.0)	38 (1.9)	4.6	3 (1.0)	1.9
Daegu	6,932 (50.4)	6,880 (58.8)	52 (2.5)	284.5	190 (64.4)	2.7
Incheon	370 (2.7)	296 (2.5)	74 (3.6)	12.5	2 (0.7)	0.5
Gwangju	186 (1.4)	165 (1.4)	21 (1.0)	12.8	1 (0.3)	0.5
Daejeon	166 (1.2)	147 (1.3)	19 (0.9)	11.3	2 (0.7)	1.2
Ulsan	57 (0.4)	34 (0.3)	23 (1.1)	5.0	1 (0.3)	1.8
Sejong	50 (0.4)	45 (0.4)	5 (0.2)	14.6	–	–
Gyeonggi	1,433 (10.4)	1,074 (9.2)	359 (17.6)	10.8	29 (9.8)	2.0
Gangwon	72 (0.5)	51 (0.4)	21 (1.0)	4.7	3 (1.0)	4.2
Chungbuk	71 (0.5)	56 (0.5)	15 (0.7)	4.4	–	–
Chungnam	185 (1.3)	159 (1.4)	26 (1.3)	8.7	–	–
Jeonbuk	38 (0.3)	18 (0.2)	20 (1.0)	2.1	–	–
Jeonnam	33 (0.2)	16 (0.1)	17 (0.8)	1.8	–	–
Gyeongbuk	1,393 (10.1)	1,369 (11.7)	24 (1.2)	52.3	54 (18.3)	3.9
Gyeongnam	153 (1.1)	110 (0.9)	43 (2.1)	4.6	–	–
JeJu	25 (0.2)	10 (0.1)	15 (0.7)	3.7	–	–
Airport Screening	950 (6.9)	–	950 (46.5)	–	–	–
Nationality						
Korean	12,916 (94.0)	11,516 (98.4)	1,400 (68.5)	–	–	–
Foreigner	829 (6.0)	184 (1.6)	645 (31.5)	–	–	–
Total	13,745 (100.0)	11,700 (100.0)	2,045 (100.0)	26.5	295 (100.0)	2.1

Table 3. Regional distribution and epidemiological links of confirmed cases

Region*	Total	Imported cases	Domestic cases				
			Shincheonji Chuch cases (and related)	Small clusters	Contacts of confirmed cases	Others	Under investigation
Seoul	1,474	323	8	872	60	77	134
Busan	157	38	12	58	18	11	20
Daegu	6,932	52	4,511	699	917	13	740
Incheon	370	74	2	263	10	9	12
Gwangju	186	21	9	143	3	6	4
Daejeon	166	19	2	100	22	5	18
Ulsan	57	23	16	4	3	9	2
Sejong	50	5	1	40	3	0	1
Gyeonggi	1,433	359	29	809	69	79	88
Gangwon	72	21	17	26	–	4	4
Chungbuk	71	15	6	29	8	2	11
Chungnam	185	26	–	142	4	4	9
Jeonbuk	38	20	1	12	–	4	1
Jeonnam	33	17	1	9	2	2	2
Gyeongbuk	1,393	24	566	478	192	3	130
Gyeongnam	153	43	32	50	6	9	13
JeJu	25	15	–	5	–	5	–
Airport Screening**	950	950	–	0	–	0	–
Total	13,745 (100.0%)	2,045 (14.9%)	5,213 (37.9%)	3,739 (27.2%)	1,317 (9.6%)	242 (1.8%)	1,189 (8.6%)

* Based on the reported data of patients, etc. via the Integrated System in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by a healthcare institution. The table may be different from the statistics of the address of patients, etc. The data may change due to delays in report and/or new findings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 Cases reported during the quarantine process in Incheon Airport and the Gimha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etc.

Table 4. Regional distribution and epidemiological links of imported cases

	Total	Nationality	
		Korean	Foreigner
China	19	12	7
Asia(excluding China)	785	353	432
Americas	696	563	133
Europe	514	451	63
Africa	27	17	10
Oceania	4	4	–
Total	2,045 (100.0%)	1,400 (68.5%)	643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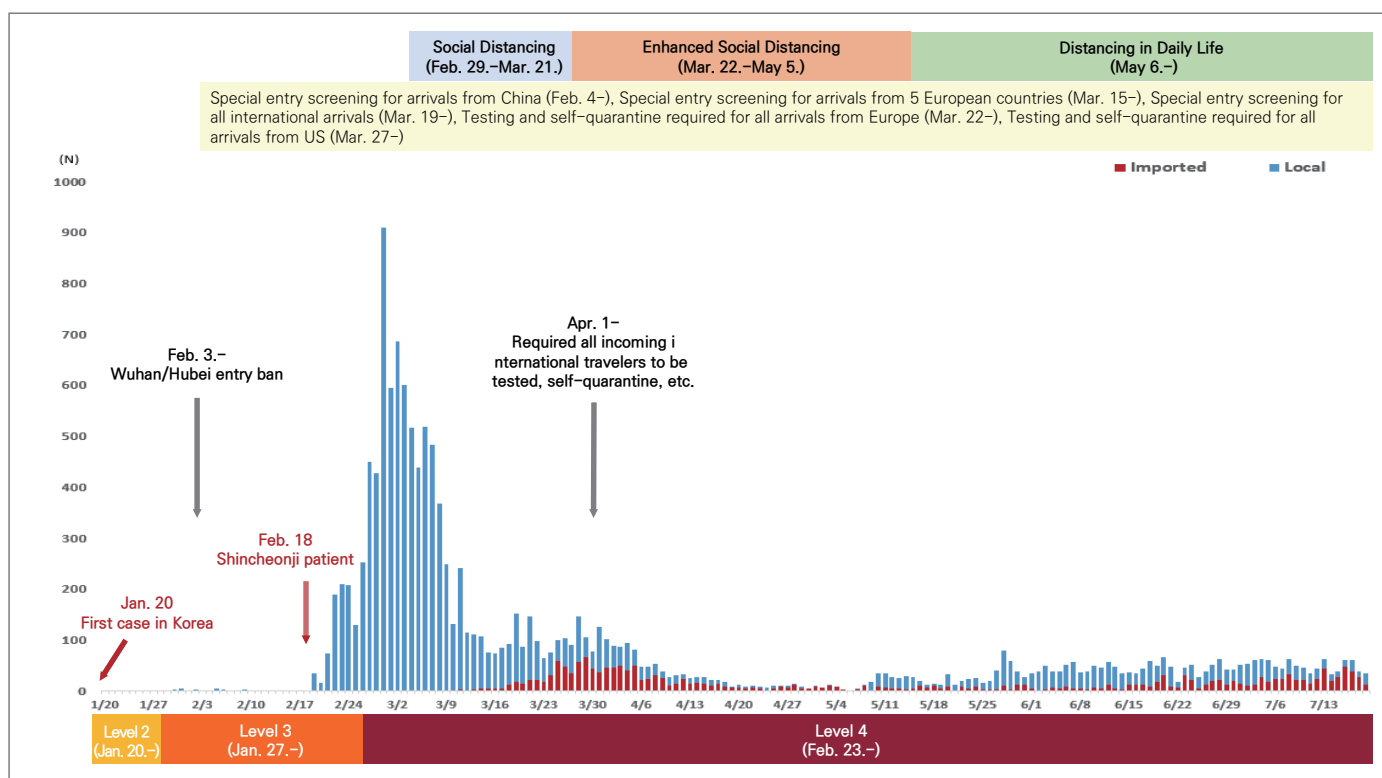


Figure 1. Domestic situation and response progression since the first local case in January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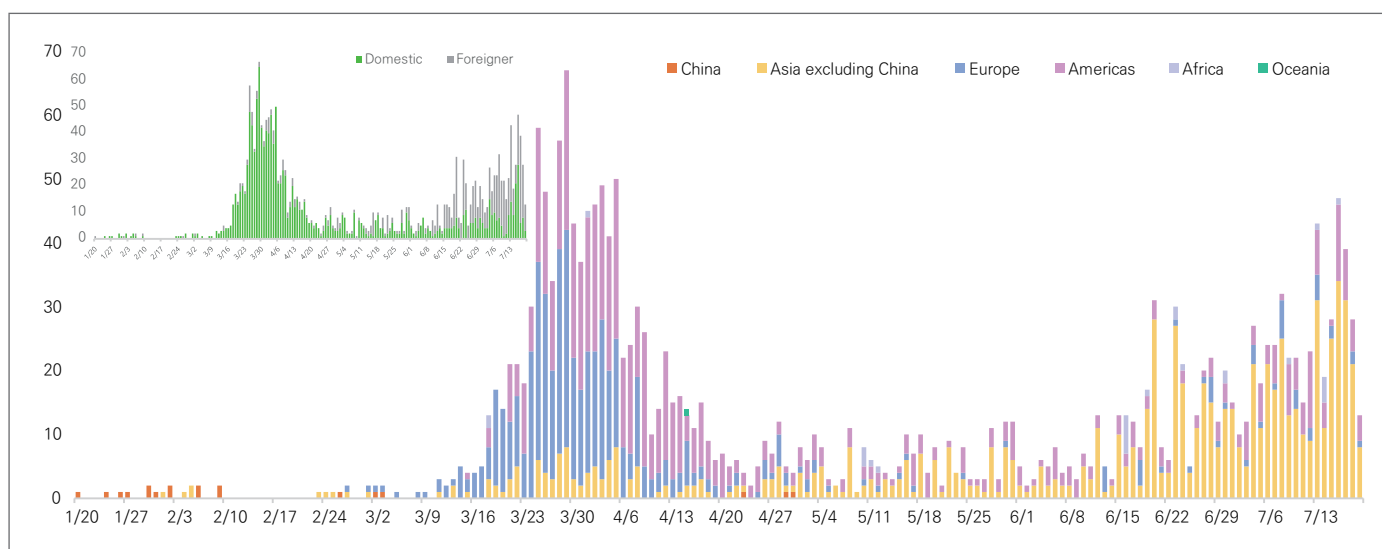


Figure 2. The status of imported confirmed c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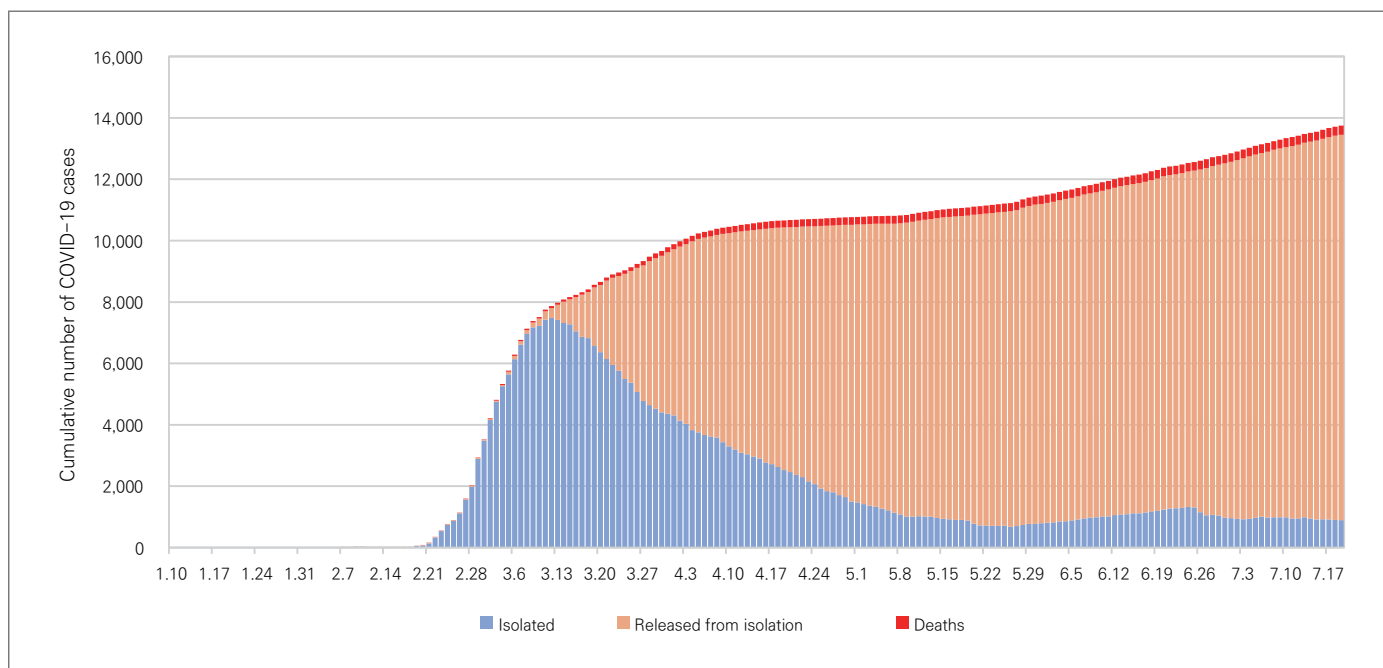


Figure 3. Total confirmed cases and case statu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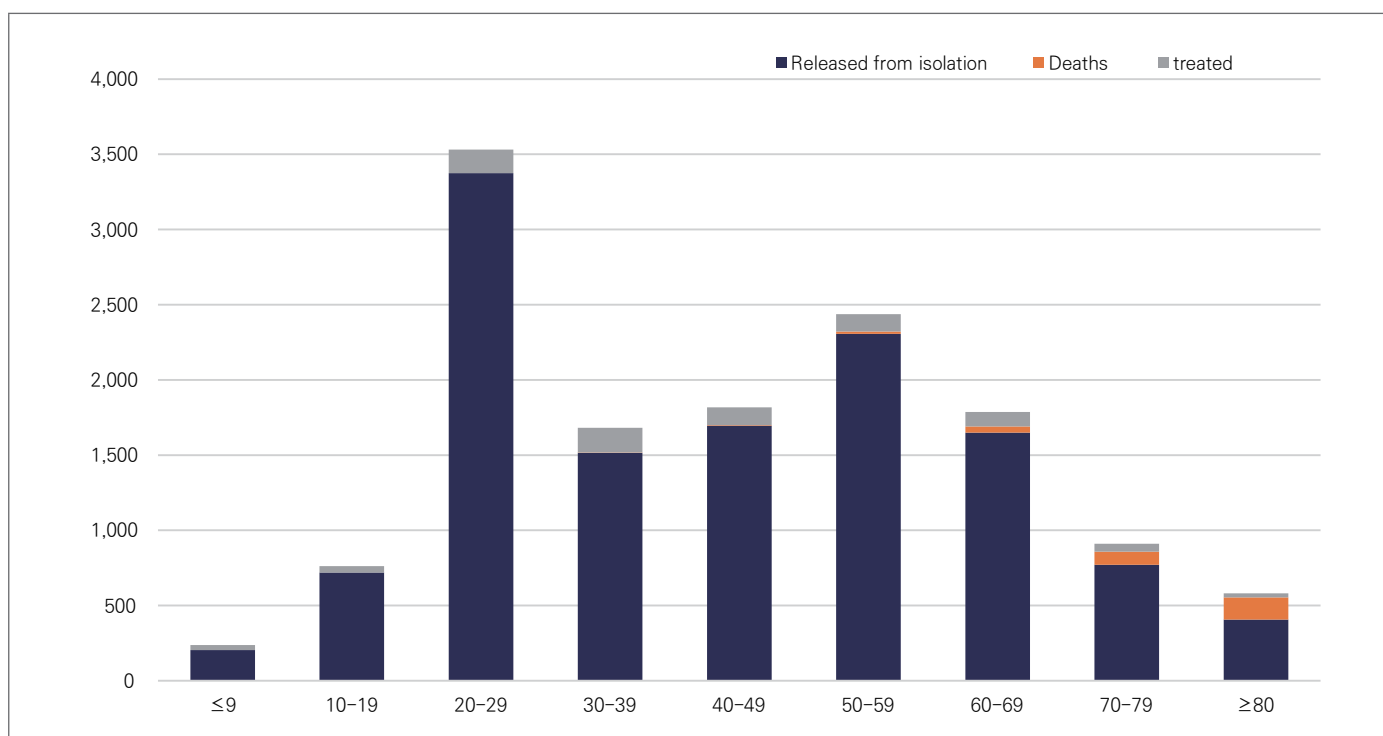


Figure 4. The distribution of case status by age group